

프랑스의 출산경향 및 가족친화정책

Laurent Caussat

프랑스 고용 및 사회통합부, 연구 평가 및 통계국 부국장

1. 배경 및 목적

오늘날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 유럽연합 전체의 평균출산율이 1.5명에 불과한데 반해,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이 1.9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한편 GDP 대비 출산장려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평균이 2.2%에 그친 데 반해, 프랑스는 2.6%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프랑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8위권에 불과하지만, 6세 이전의 미취학 아동대상 보육시설, 소득세 감면, 가구 구성에 따른 주택보조금 등 전반적인 재정적 지원제도를 감안하면 프랑스의 GDP 대비 출산장려 관련 예산 순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대한 가족지원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 유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매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는 분석적인 접근을 통해 프랑스의 가족지원정책과 출산율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프랑스의 출산율 동향

1)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와 '베이비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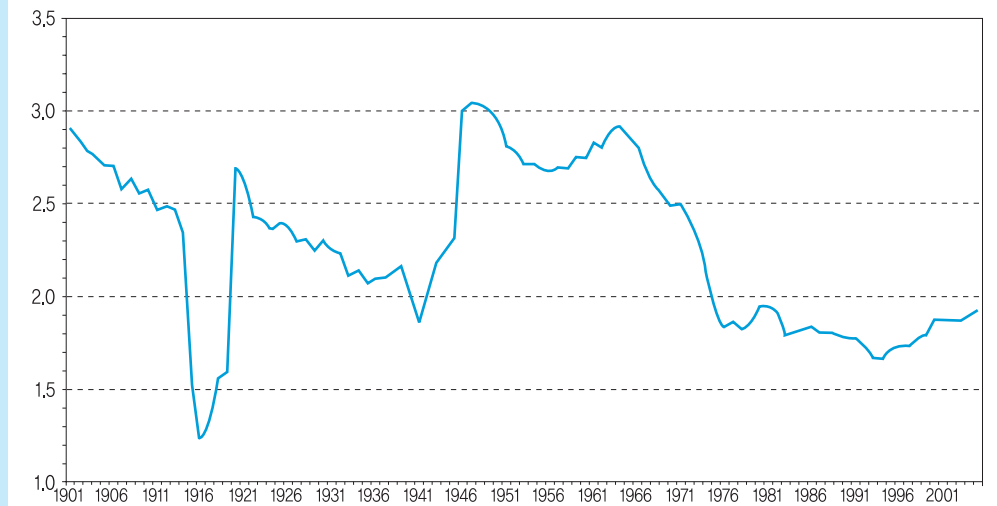
20세기 전체를 통해 본 프랑스의 출산율 동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출생자수 급감.
- 1차 세계대전 직후 과거의 저출산율 사회로 복귀.
-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산율 급증('베이비붐').
- 1965~1976년 기간 동안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이후 전반적인 안정세에 진입.

2) 프랑스는 현재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옹호한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출산율은 유럽과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에 속한다. 2002년도 합계출산율이 1.88명을 기록하여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아일랜드(1.9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며, OECD 국가들 중

그림1. 합계출산율(프랑스, 1901-2004년)



자료출처: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미국(2.01명)의 출산율에 접근하고 있다.

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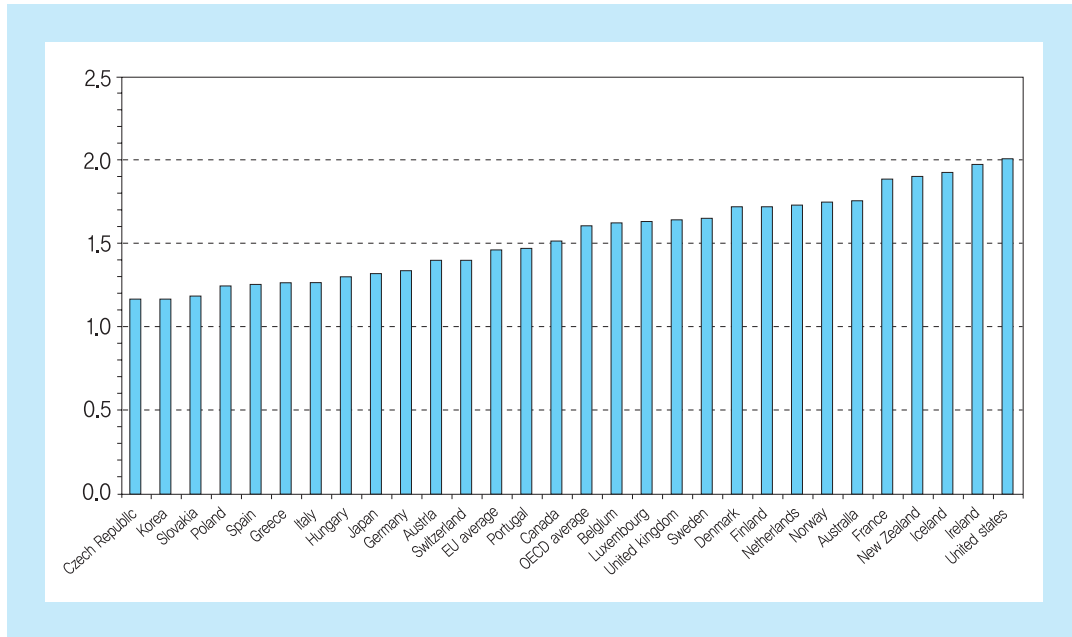
3) 프랑스는 30대 여성 출산율의 증가로 낮은 연령대 여성의 출산율 감소를 상쇄시킨다.

평균적으로 2004년 현재 27세인 여성은 0.7명의 자녀를 출산한 반면, 1970년 현재 27세인 여성은 1.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이와는 달리 28세 이상의 여성들은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1명의 자녀만을 출산했었지만, 지금은 같은 연령대의 여성들이 1.2명의 자녀를 출산한다. 이와 같이, 30대 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그보다 낮은 연령대 여성의 출산율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

4) 장래 출산율을 1.9명으로 가정한 최신 인구 예측자료는 연금지출 부담과 같은 고령화 사회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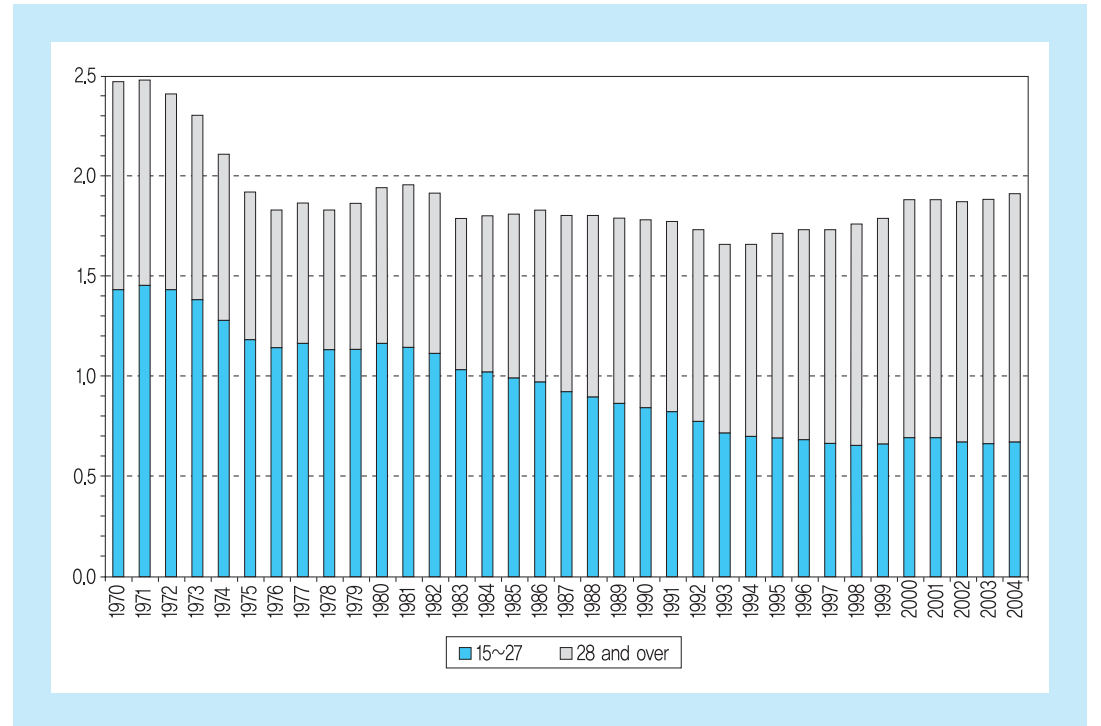
프랑스 통계청은 최근 조사된 수준인 1.9명을 합계출산율로 적용하여 새로운 인구 예측을 발표했다. 종전의 예측은 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 가정한 바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개선은 2050년까지 전체 GDP 예산의 0.4%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선진국 합계출산율 현황(2002)



자료출처: Eurostat, OECD

그림 3. 15~27세, 28세 이상, 전체 연령군의 출산율 합계



자료출처: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3.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1) 프랑스는 자녀를 둔 가구에 현금수당을 지급 한 최초의 유럽 국가에 속한다.

프랑스의 출산장려 관련 사회보장예산 지출은 총 예산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에서 복지 제도가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 보다도 관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프랑스의 가족지원제도는 실제로 있어 매우 관대하며 다양화되어 있다.

프랑스의 현금가족수당제도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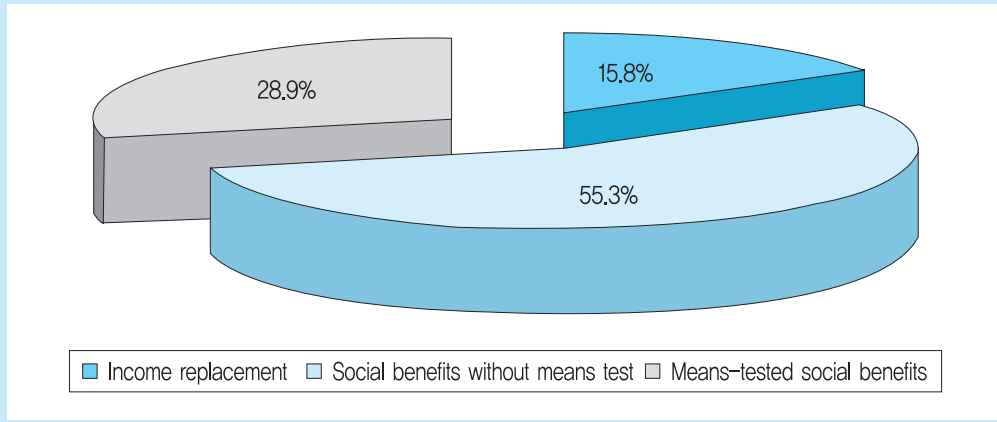
- 소득보전(전체 현금수당의 16%)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수당으로서 육아휴직 기간 중의 산모 혹은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여기에 포함된다.
- 소득 평가 절차 없이 지급되는 기타 가족수당으로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55%)을 차지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수당

- 은 'allocations familiales'로서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일시불로 지급되며, 막내 자녀가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된다.
- 소득 평가 절차를 필요로 하는 가족수당(전체 현금가족수당의 29%)으로서 엄격한 소득기준을 전제로 편부모 가구에 지급되는 최저소득이나 취학아동을 지원하는 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현물보조 분야에서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쳐지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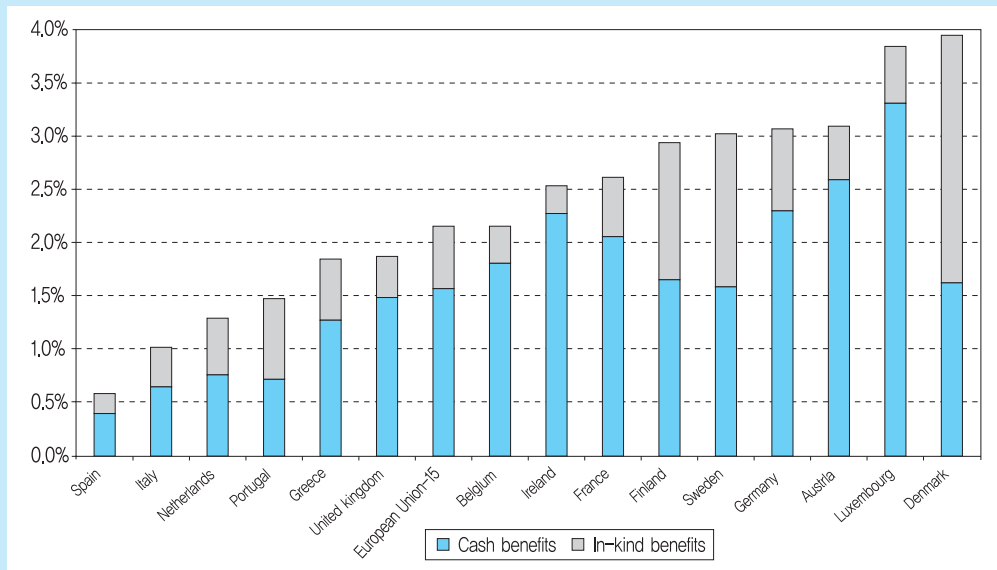
프랑스는 보육시설이나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같은 현물보조 제도를 포함할 경우 지원규모가 유럽연합의 국가들 중에서 뒤쳐지는 면을 보인다.

그림 4. 항목별 가족현금수당(2005년)



자료출처: Ministry for Health and Solidarity, Directorate for Research, Economic Studies, Policy Evaluation and Statistics.

그림 5. 일부 유럽 국가들의 가족지원수당 현황 (2003년도 각국 GDP에서 현금 및 현물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출처: Eurosta

4) 프랑스에서는 보육시설이 보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제한적이다.

3~5세 사이의 아동들은 부모가 원할 경우 전원 보육시설에 수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2세 이하의 유아도 28%까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프랑스는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만 고유하게 시행되는 제도인 ‘가족비율’ (quotient familial)은 소득세율에 통합되어 적용된다. 자녀가 추가되면 이러한 가족비율에 따라서 일률적인 세금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4.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1) 재정적 지원제도가 출산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homas Piketty가 1994년도부터 시행된 ‘육아휴직수당’ (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제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 육아휴가 혜택을 부여하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여성의 비율이 19% 가량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

탕으로 Piketty는 1994년도의 제도개혁이 시행 연도 이후 출산율 증가분의 20~30%를 담당했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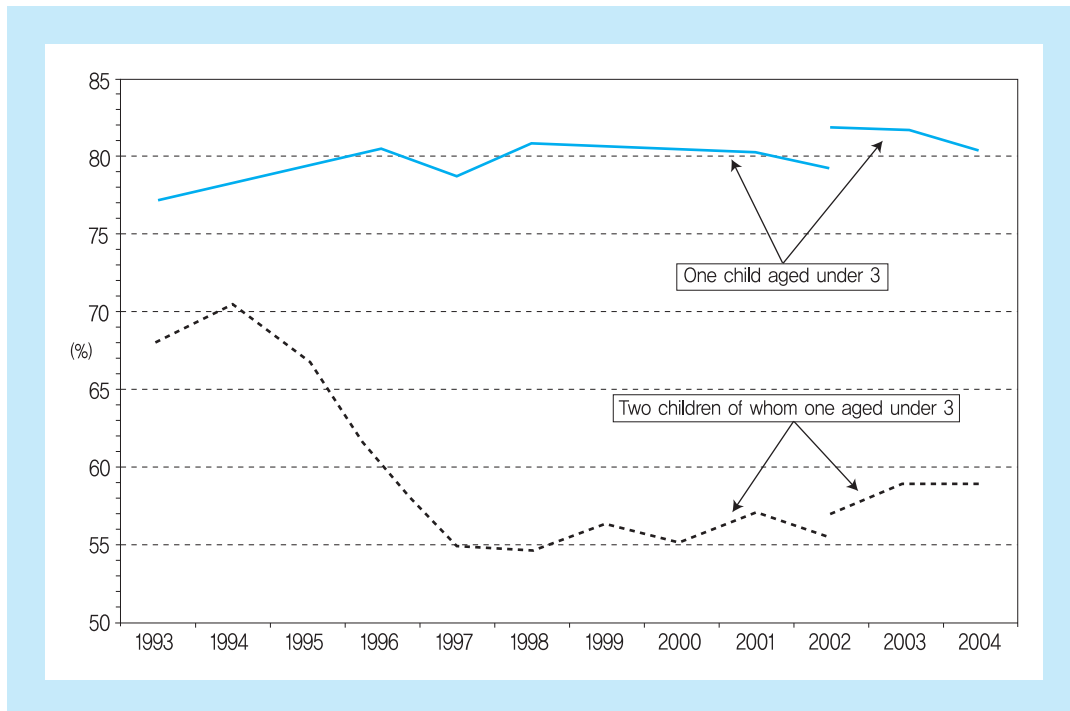
2) 국가간 비교 연구를 통해 프랑스의 관대한 출산장려정책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뒷받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OECD 국가들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 프랑스의 관대한 출산장려정책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출산율을 0.2명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3) 정책과 관련된 세 가지 고찰

- 높은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비재정적 요인들도 관여한다.
- 비재정적 요인들에는 보육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제도, 자녀를 둔 부모가 직장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동 관련 법규정 등이 포함된다.
- 출산율 증가를 위한 관건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이다. 전문직 여성의 평균 자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전문성 개발과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동시에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출산율장려정책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며, 소득재분배 등과 같은 여타 사회정책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림 6.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과 3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는 두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 (1993~2004년)



자료출처: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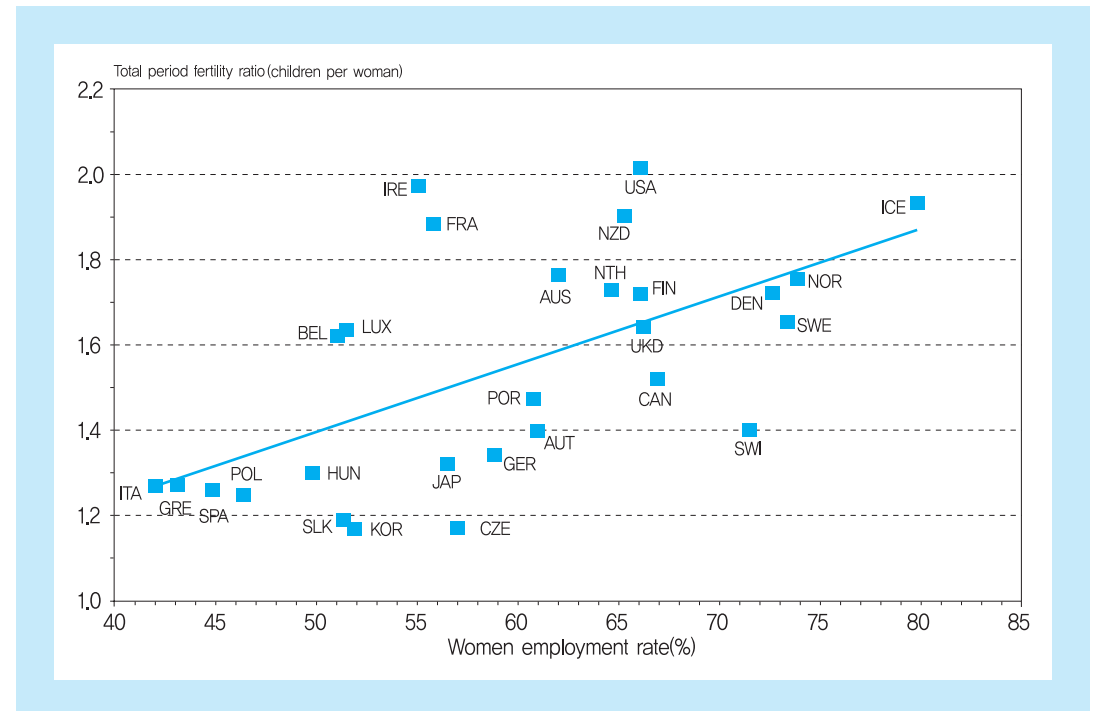
- 특히, 전문직 여성의 출산을 장려할 경우, 소득 재분배 원칙에 위배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비전문직 여성근로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 참고문헌

Aglietta M., D. Blanchet, F. Héran (2002), “Démographie et Économie”(Demographics and Economics, summary in English), report

to the Council of Economic Analysis, n° 35,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March.
 Bechtel J., Caussat L., Courtioux P., Laïb N., Le Minez S., Mirouse B. (2005), «La politique familiale française: coût et bénéficiaires» («French Family Friendly Policy: Expenditures and Recipients»), in Godet M., E. Sullerot (eds.), “La famille, une affaire publique” (The Family, a Public Issue, summary in English), report to the Council of Economic Analysis, n°

그림 7. 전체 출산율과 여성 취업률(1990년, 2000년)



자료출처: OECD

57,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November.
 Blanchet D., O. Ekert-Jaffé (1994), “The demographic impact of family benefits: evidence from a micro model and from macro data”, in John Erish and Naohiro Ogawa (eds), “The Family, the Market and the State in Ageing Societies”, Clarendon Press, Oxford.
 Godet M., E. Sullerot (2005), “La famille, une affaire publique” (The Family, a Public

Issue, summary in English), report to the Council of Economic Analysis, n° 57,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November.
 Calot G. (1998), “Fertilit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paper prepared for the Reg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Budapest, December.
 Ekert-Jaffé O. (1986), “Effets et limites des aides financières aux familles : une expérience, un modèle” (Effects and Limits of Financial

Incentives to Families : Evidence and Modelling”, Population, n° 2, National Institute for Demographic Studies.

Ekert-Jaffé O., Joshi H., Lynch K., Mougin R., Rendall M. (2002), “Fertility, Timing of Births, and Socio-economic Status in France and in Britain: Social Policies and Occupational Polarisation”, Population, n° 3, Ined, 2002.

Laroque G., B. Salanie (2005), “Does Fertility Respond to Financial Incentives?”, CEPR Discussion Paper, London, April.

Piketty Th. (2005), “Impact de l’allocation parentale d’eductaion sur l’activite feminine et la fecondite en France” (“The Impact of Parental Leave Benefit on Female Participation and Fertility”), in Lefèvre C.(ed.), “Histoires de familles, histoires familiales” (Stories of families, familial histories), Cahiers de l’Ined, n° 156, National Institute for Demographic Studies, Paris.

Robert-Bobée I. (2006), “Projections de

population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á l’horizon 2050 : la population continue de croître et le vieillissement se poursuit” (Population Forecasts for Metropolitan France by 2050 : Population is Going On Growing and Ageing), Insee Premiere, n° 1069,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Paris, July.

Sardon J.-P. (2004), «(Recent Demographic Trends in the Developed Countries)», Population, n° 2, National Institute for Demographic Studies., Paris, 2004.

Toulemon L. (2003), “La fécondite en France depuis 25 ans” (Fertility in France since the past 25 Years), report to the High Council for Population and Family, Paris, January.

Toulemon L. (2004), “Fertility among Immigrant Women: New Data, a New Approach», Population and Societies, n° 400, National Institute for Demographic Studies, Paris, April. [GSST](#)